

현대 상업영화의 페미니즘 표현분석연구 (영화 “소공녀(2017)”을 중심으로)

이태훈

경희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

Feminist Expression Analysis of Modern Commercial Movies (Focusing on “Micro-habitat(2017)”)

Tae-Hoon Lee

Professor, Division of Digital Contents Design, Kyunghee University

요 약 한국 문화 전반에 성 평등을 주제로 한 페미니즘이 중요한 이슈로 연구 대상적 가치가 급상승하였다. 페미니즘 영화란 단지 여성의 권익을 주장하거나 옹호하는 차원의 수준이 아닌 과거 남성들이 창조한 스토리 속에서 대상화되거나 타자화 된 인물로 왜곡, 인위적으로 묘사되던 그릇된 여성의 모습이 아닌 시선과 사고의 본질적 주체로서 사회 속 개인의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탐구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전고운 감독의 영화 ‘소공녀(2018)’를 분석하였으며 영화 속에는 남성 편향적 고정관념과 불평등적 사회구조에도 주인공의 꾸준한 자기 선택과 초월적 사고를 보여주는 페미니즘 적인 주제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중영화가 세상에 대한 넓은 식견을 키우는 교육 계몽적 성격을 견지하고 성숙한 사회문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사회에 대한 전지적 통찰과 이상적 인간관에 대한 제고 등을 다룬 영화는 사회를 긍정적이고 이상적으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제어 : 페미니즘, 대중예술, 인문학적 고찰, 이상적 인간관, 사회 문화 선도

Abstract Feminism on the theme of gender equality is emerging as an important issue in the overall Korean culture. Feminism is not only a level of claiming or advocating women's rights, but an essential subject of gaze and thought, not a distorted, artificially portrayed image of women distorted or typified in a story created by men in the past It is a film that explores the problem of the individual's life in society fundamentally. Jun Koeun 's movie' 'micro-habitat'(2018) 'expresses a feminist theme that shows a strong self - selection and transcendental thinking in male - oriented stereotypes and unequal social structure. The film, which focuses on the public insight into society and the enhancement of the ideal human being from the viewpoint that the public film should lead the educated enlightenment character that raises the broad insight into the world and lead the mature social culture, I think it will play a big role.

Key Words : feminism, popular art, review of humanities, ideals human-being, Leading social culture

*This paper was supported by 2018 Kyung Hee University customized research project

본 논문은 2018년 경희대학교 맞춤형 연구 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Tae-Hoon Lee(thlee1401@empas.com)

Received July 30, 2019

Revised August 28, 2019

Accepted October 20, 2019

Published October 28, 2019

1. 서론

1.1 연구 배경

오늘날, 거대자본 산업으로 팽창한 한국의 영화산업구조는 대기업 중심의 상업영화에 집중되어 그 다양성과 예술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가는 추세이다. 세계적으로도 컴퓨터그래픽스 등의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마블 코믹스 등의 S. F 히어로 물이 전례 없는 히트를 치는 등, 만화 오락적인 성격을 띤 콘텐츠들의 범람하며 영화는 예술로서의 고매한 가치와 격을 잃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정적이며 모호한 내러티브와 원초적 감성만을 자극하는 최근 영상 콘텐츠의 트렌드를 고려해보면 인간과 사회, 문화, 역사 등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 인문학적 예술적 사고가 부족하며 그 필요성과 전통적 가치조차 희석되고 있다.

과거 상업영화가 예술적 가치에 집중하던 시기에는 흥미로운 개인의 삶을 그린 스토리구조와 캐릭터들의 갈등 속에 사회의제가 암시적으로 표현되면서 시대의 사회 면모에 대한 감독의 시선을 드러내는 영화가 많았다. 즉, 철학적 의제로 관객의 고찰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간접 체험을 통한 자아성찰을 이루게 하며 예술로서의 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진정성을 내재한 사회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영화 속 사회의제를 통해 표현된 감독의 통찰적인 시선 표현 등이 대중문화에 있어 예술성을 내재한 상업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

현대 우리사회에는 여러 사회의제들 중 여성의 평등과 사회적 동등함에 대한 이슈인 페미니즘이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예술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영화산업에서도 이와 같은 페미니즘을 이슈로 한 영화들이 꾸준히 등장하면서 이와 같은 사회적인 흐름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영화의 문화적 파급효과나 사회적 비중 탓인지 페미니즘을 소재로 한 원작 소설의 영화화에 대한 뉴스에도 사회전체가 편을 가르고 대립하는 등 페미니즘은 이제 사회의 주요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페미니즘 영화란 단지 여성의 권익을 주장하거나 옹호하는 차원의 수준이 아닌 과거 남성들이 창조한 스토리 속에서 대상화되거나 타자화 된 인물로 왜곡, 인위적으로 묘사되던 그릇된 여성의 모습이 아닌 시선과 사고의 본질적 주체로서 사회 속 개인의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탐구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2].

진고운 감독의 영화 ‘소공녀(2018)’는 냉혹하기 만한 현실사회의 높은 벽에 젊은 세대들의 고뇌를 그리고 있는 영화로 남성 편향적 고정관념과 불평등적 사회구조에도 주인공의 깨끗한 자기 선택과 초월적 사고를 보여주는 페미니즘 적인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3].

진고운 감독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은 이 작품 속 ‘여성 주인공’을 통해 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불평등과 착취, 상품화 등에도 주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주인공 미소의 모습을 통해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다.

영화 안에서 너무 왜곡되게 묘사되던 과거의 여성의 모습을 탈피, 실제적 모습과 최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여성의 본질 또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사회의 핫 이슈이며 사회현상인 페미니즘을 영화 속 주제로 설정하며 주인공의 어드벤처를 통해 여성의 사회 속 위치, 시선, 의식 등을 묘사 하고 있는 영화 ‘소공녀’의 분석은 오락일변도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성격이 지배적인 오늘날 상업영화의 모습 속에서 인문학적인 사회와 개인의 고찰이라는 측면에서 그 예술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 된다.

1.2 연구 방법 및 의의

사회현상과 현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 ‘소공녀’에 나타난 페미니즘 요소의 분석은 상업영화에 있어 예술성의 표현과 발현에 대한 방법론의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즉,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현실에 대한 인문학적인 고찰과 관습과의 충돌로 추구된 감독의 전위적인 내적 이상의 예술적 표현은 상업영화가 대중예술로서의 격과 깊이를 발전시키는 훌륭한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업영화의 예술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업영화의 예술적 본질에 대한 지표표를 도출할 수 있으며 대중예술로서의 영화에 대한 관념과 인식을 회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영화 ‘소공녀’는 기존의 성별관계의 불평등 요소를 드러내고 사회 내의 여성의 위치를 재정립하며 동등한 성으로서의 여성성을 획득하려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슈를 다룬다는 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부계중심사회 속에서 시부모와 남편, 자녀 등의 봉양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나 부유한 남편 밑에서 하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도 남성 중심적 편향 사회구조의 모습과 관념에 대한 페미니즘 적인 평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지나치게 상업 오락일변도인 오늘날 영화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이와 같은 연구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현대 대중예술 영화 속 예술성의 향상 및 상승을 위한 좋은 연구 사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2. 이론

2.1 페미니즘의 정의

페미니즘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은 성별에 상관없이 사회·경제·정치적으로 동등하다는 신념을 뜻하며, 우리 말로는 남녀평등 사상, 여성주의 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또 그런 신념을 지니고 실천하는 사람을 페미니스트(feminist)라고 한다[4].

근대 서구에서 유래한 사상이지만, 현재는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조직과 개인이 존재하고, 페미니즘의 내용이나 방향도 다양하다. 여성이 역사적으로 억압과 배제를 경험했으며 그로 인해 생겨난 불평등한 성별관계를 바꿔야 한다는 믿음이 있는 경우 페미니즘이라고 호명한다[5].

2.2 페미니즘 영화의 정의와 사례

페미니즘 영화란 여성이 서사의 중심인 영화를 뜻하는데 본격적으로 관련 연구와 이론이 활성화 된 건 1970년대 초이다[6]. 페미니즘 영화를 의미적으로 정의하자면 영화 속 여성을 수동적이고 타자화된 존재가 아닌,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그린다라는 점이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남성중심의 세계관이나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도 감독이나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외형적이고 표면적인 설정이 아닌 현실에서 여성이 마주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여성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영화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7].

예를 들면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1990)의 성폭행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를 행했다가 도리어 궁지에 몰리게 된 여자의 이야기와 같이 다분히 남성 중심적 관점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당한 불평등을 고발하며 여성의 인권을 여성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영화를 들 수 있다.

또한 영화 ‘바그다드 카페’(1988)같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여성이 소울 메이트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을 담은 경우도 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8].

한편, 대표적인 페미니즘 영화라고 알려진 영화 ‘델마와 루이스’(1991)는 비록 기존의 할리우드 영화의 구성에서 주인공을 여성으로 대체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남자 감독의 시선에서 만들어졌다는 점과 헐리웃 미녀 스타들의 출연으로 남성관객 취향에 편승했다는 점, 총과 자동차라는 남성성의 상징물이 사용되었다는 점, 즉 전형적인 남성의 야만성을 통한 서부영화 특유의 폭력성을 담고 있다는 점, 남성중심사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자살을 한다는 점 등은 페미니즘 영화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의문적인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 영화 또한 여성의 지위와 성적 선택에 대한 편견과 낙담, 남성중심 사회의 일방적 폭력성의 묘사 등은 다분히 페미니즘 적인 시사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9].

이렇듯 페미니즘 영화의 핵심은 사회의 만연한 남성 중심의 시선을 견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화 ‘아가씨’(2016)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수위의 신체노출 정사신 등으로 남성 판타지라고 평가되어지기도 했지만 남성권력에 의해 욕구적인 대상으로 취급되던 여성들이 선택의 주체로서 서사되며 죽어가는 순간에도 여전히 남성성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남성의 모습의 묘사 등은 다분히 페미니즘 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노출은 남성 중심의 시선 주체의 관음과 맞물리면서 성의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영화를 장악하는 시선의 주체가 여성관객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그 평가는 달라 질 수 있다.

즉 반복적인 시점 쇼트들을 뒷받침하는 내레이터의 존재인 두 주연을 통해 시선의 주체, 즉, 카메라와 섹슈얼리티가 여성의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옷으로 은유된 신분의 차이를 벗어던지고 솔직한 성적 기호와 느낌에 대해 당당한 자기의사표현을 보이는 두 주연의 모습은 신분과 권력, 체면을 상징하는 의복과 비뚤어진 욕망 속에 빠져사는 남성들의 모습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의 노출은 터부시되지만 여성은 성과 쾌락에 문제 앞에서 소극적이어야 한다는 남성 중심적 관념을 철저히 전복하는 것이다. 그만큼 여성의 성에 대한 인식의 동등함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할 수 있는데 비록 영화 ‘아가씨’가 여성의 평등과 해방은 이래야 한다는 직설적 주장을 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상업영화로서 남성중심의 관념적인 해방을 극단적으로 향유하고 선보이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10].

본론에서 다루게 될 영화 ‘소공녀(2017)’는 사회 속에 공존하는 다양한 형태의 남성 편향적 고정관념과 불평등적 사회구조 등을 주인공 미소의 곳곳한 자기 선택과 초

월적 사고로 비판하고 있는 전형적인 페미니즘 영화이다.

영화 '소공녀'의 영어 제목 'microhabitat'는 미미한 서식지를 의미하는데 애벌레에게 거쳐 겸 식량이 되는 낙엽이나 작은 동식물이 연명할 환경이 되는 통나무 조각을 그 예라 할 수 있다. 영화 '소공녀'속 미소(이 슴 분)의 방랑도 신세지거나 침해하지 않는 '서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집과 기호품 중 더 큰 행복을 택하고 방을 뺀 후 여행 가방에 생필품을 꾸리고 친구들을 하나씩 방문해 달걀 한판과 가사노동을 숙식과 교환한다. 그녀의 선택은 합리적이고 누구의 삶에도 해가 되지 않으나, 사람들은 미소가 사는 방식을 불편해 하며 자꾸 불평등하고 기존 관념에 입각한 '상식적' 삶에 끌어드리려 함을 알 수 있다[11].

집보다 담배와 위스키를 선택한 주인공 미소의 모습은 소설 '소공녀'의 주인공 세라처럼 하녀와 같은 하위 층 서민이지만 인간적 존엄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우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주제적 자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물질적 환경적 역경이 반드시 비뚤어지거나 타락, 고매함을 잃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본론

영화 '소공녀'는 어릴 때부터 포기를 학습 받고 강요받은 소위 '엔포' 세대라 불리는 젊은 세대의 냉혹한 사회 생존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이다. 현실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타협하며 자신의 취향과 목소리를 스스로 저버리는 이 시대 젊은이들의 자화상을 투영하고 있는데, 더욱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 주인공 미소의 관점에서 경험되어지는 가혹한 사회현실들을 주된 갈등요인으로 다루고 있기에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포기하는 삶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취향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내는 미소의 낮은 모습을 통해 전고운 감독의 인생에 대한 가치주장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집, 직장, 남편 같은, 또래의 여성에게 당연히 부과되는 '해야 할' 것들에서 벗어난 미소의 선택을 통해서 전고운 감독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이 처한 현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현재를 긍정적인 주인공 미소 캐릭터와 블랙 코미디적 사건을 경험케 하며 갑갑한 현실에 갇히기보다는 차별화된 시각을 제공해준다.

즉, 남성을 닮아가려는 여성이 아닌 진정한 여성다움 즉, 수동적, 소극적, 조신함으로 표현되는 '여성성'이 아니라, 섬세하고 사려 깊고 합리적이며 부드럽지만 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제적 여성의 모습으로 묘사되며 갈등이 귀결되는 구조로 구성되었기에 영화 '소공녀'는 이 시대 여성의 현실을 직관적으로 통찰하고 있는 페미니즘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링거를 맞아가며 무한경쟁 속 회사생활을 영위하는, 좁은 시택에서 생활고와 눈치로 살아가는, 거대한 저택 속 남편의 눈치를 보며 갑갑한 삶을 사는 친구들의 모습 등 집, 직장, 남편 같은, 또래의 여성에게 당연히 부과되는 '해야 할' 것들에서 벗어난 주인공 미소의 모습을 통해서 감독은 선택보다는 포기로 이루어진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화 '소공녀'는 남성과 남성중심의 사회에게 받는 사랑이 아닌, 자신의 취향과 인생관을 사수하는 게 목표라는 점에서 페미니즘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집은 없어도 생각과 취향은 있어'라는 말로 절박함을 거부하며 동화 '소공녀'의 주인공 세라처럼 미소는 어떤 처지에서도 품위를 지키며 뭉가를 갖기 위해 삶의 소신을 꺾거나 아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이 자신만은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 주체로서의 여성관을 통해 페미니즘적인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12].



Fig. 1. expressing harsh social life for woman

3.1 사회적 기호품에 대한 편견

담배는 우리사회가 편견적 시각으로 여성에게 엄격한 잣대를 내미는 기호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의 담배 피는 모습을 통해 성에 대한 불평등한 사회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전고운 감독은 '실제 담배는 순한 여자도 착한 여자도, 그냥 피우는 기호식품일 뿐인데 영화 '타짜'에서 정 마담처럼 '센 여자'들을 설정할 때 꼭 담배를 쥐어 준다며 남성의 전유 유희 물로 상징되는 '술과 담배'일지라도 당당하게 자신의 기호로 의사를 표현하게 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카페 앞, 남자 무리들 앞에서 늘 당당히 피우는 모습을 통해 일반 통념적 시선에

생경함을 이끌어 내며 천박함으로 치부하는 우리 자신 속 편견에도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3].

여자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해야 하는 자기선택과 무관하게 짙어진 출산 역할의 운명적 태생에 대해 근원적인 자기선택에 대한 저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듯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설정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독의 페미니즘적인 시각을 은은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ig. 2 참고)

감독은 ‘여성의 욕망이 사랑이나 남자에 국한되지 않고, 술이나 담배일 수도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고 이십대 때 좋아했던 것들을 담으며 주체자로서의 여성을 그리고 싶었다.’며 그의 페미니즘적인 사고를 표명하였다



Fig. 2. Expressing the gaze of social inequality with tobacco

감독은 또한 여성 캐릭터가 백발로 담배를 피우면서 거리를 걸어가는 장면을 생각했는데, 그런 비주얼만 보여줘도 카타르시스가 오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여성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취미를 갖고도,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며 영화 속 사회의제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14].

Table 1은 영화 속에 드러난 사회적 시선 속 선입견을 요소별로 정리한 것이다.

Table 1. expressed prejudice in the social gaze

element	reality	prejudice
alcohol, tobacco	pungent	frivolity
delivery	choice	fate
woman	subject	expendables
school uniform	uniform	forced prudence

이렇게 전고운 감독은 그의 신작 ‘페르소나’(2019)에서도 주인공 하나의 모습을 통해 사회적 통념이 강요하

는 교복을 입은 조신한 이미지의 여고생이 아닌 자유분방한 캐릭터를 디벨로프 하는데 담배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비닐봉지를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며 족발을 게걸스럽게 먹고 담배를 피우는 자유분방한 여고생 하나의 모습을 통해 여고생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여고생들의 여러 모습 등을 그리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 참고)



Fig. 3. Expressing the gaze of social inequality with school uniform

3.2 사회적 구조에 대한 시선

소위 ‘유리천정’이라 일컫는 차별 등 다양한 성불평등이 존재하는 남성중심의 무한경쟁사회에서 스스로 링거를 맞아가며 고단한 회사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친구 문영의 모습과 부계중심사회 속에서 시부모과 남편, 자녀 등의 봉양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친구 국회의 모습, 또, 부유한 남편 밑에서 주눅 들어 하인처럼 눈치를 보며 육아에 치이며 살아가고 있는 친구 정미의 모습 등은 남성 중심적 편향 사회구조를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불평등한 시각으로 조망하며 공감대를 이끌어 내 페미니즘적인 평등을 역설하고자 하는 감독의 의지를 알 수 있다.

텀블러를 재떨이로 사용하며 담배 핀 것의 발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친구의 모습, 결혼이 병인 것 같다며 엄마가 보고 싶다는 친구의 모습 속에 여성의 현 사회구조 속 짙어진 불평등한 시선과 짐을 고발하듯 표현하고 있다.

영화 소공녀는 여성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담담히 비추면서도 다른 삶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영화다. 밴드동아리시절 자신의 삶을 살았던 멋진 언니들과 동기들을 찾는 여정에서 캠퍼스 밖으로 사라진 언니들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떠밀리듯 취업, 결혼, 출산, 육아로 이미 정해진 길이 확고한 사회에서 여성 청년들은 자기의 취향과 욕망을 버려야 살아남는다는 현실을 주변인물들의 삶으로 이 영화는 묘사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제 뜻을 고집하며 사는 흔치 않은 주인공 미소를 주변 지인들에게서 비정상적으로 비난받게 하며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 온전한 나로 사는 삶이 불가능한 우리사회의 현실 속 여성의 위치에 대한 현주소를 재각인 시키고 있는 것이다[13].

‘요새도 작곡 하나?’는 미소의 질문에 키보드가 창고로 버려질 때 그녀의 꿈마저 버려졌음을 암시, 가사노동으로 착취를 당하는 며느리의 현실을 묘사하며 결혼과 동시에 욕망과 취향을 포기하는 일에 익숙해져야만 살아남는다는 서글픈 현실을 폭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4]. Table 2는 사회 속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표현하는 영화 속 장치와 요소 등을 분류, 요약한 내용이다.

Table 2. expressed prejudice in the social gaze

element	description	sub-text
linger	Toughness	harshness
ashtray	fear	An inequitable gaze
smoking man	un-protected	insecure

그의 남자친구인 한술에 대한 태도 또한 이와 한 맥을 이룬다. 그는 ‘만화 그만두고 남들 다하고 사는 것 하면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며 냉혹한 시대 속 엔포 세대의 전형적인 인물로 묘사되는데 이에 대해 주인공 미소는 살 집을 구해오지 않아도 여성의 권리와 전통 등을 운운하지 않으며 오히려 만화가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며 스케치북을 선물로 준다. 이는 물질적 환경적 역경이 반드시 비뚤어지거나 타락, 고매함을 잃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체성을 재차 표현함과 동시에 남성에게 받는 수동적 사랑이 아닌, 자신의 취향과 인생관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주체자로서의 여성관을 드러내는 페미니즘 영화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2].

또한 그녀는 영화 내내 찾아간 친구들에게 과거 많은 선행을 베푼 것으로 드러나며 인생론을 들먹거리거나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밴드멤버들, 그리고 관객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인 로드무비는 주인공의 변화와 자각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주인공 미소는 주변인들을 자각하게 만들며 사회정화적인 주체로서의 여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산동네 허름한 건물 안 칙칙한 셋방에서 미소가 창문을 여니 신원미상의 남자가 담배를 피며 쳐다보자 깜짝 놀라며 창문을 닫는 장면이 있는데 이 또한 범죄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독거 여성의

불안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ig. 4 참고)



Fig. 4. Expressing the woman's fear against a criminal blind spot

3.3 성 평등에 대한 고찰, 관념

성매매 여성의 집 청소를 하던 주인공 미소는 집주인의 처 박혀 있던 대학 졸업사진을 발견하고 조심스레 들어 올려 닦고는 예쁘게 내려놓는 장면이 있다. 사회에서 밀려나 이곳까지 온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달리 미소의 한 인격체에 대한 소중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화 후반부 이 여성이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임신을 했다며 자신을 헤프다고 자학하는 장면에서도 ‘헤픈 게 어때서요?’라는 말로 여성에게만 엄격한 정조관념을 강요하는 사회의 편향적 사고와 시선에 대해 페미니즘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15].

실제로 여성에게 성의 선택과 자유라는 관점에 대해 억압과 금기 등 사회통념은 무척이나 보수적이며 가혹하고 비판적인 온 것이 사실이다. 주인공 미소의 만민 평등적 사고와 판단에 따른 어찌 보면 당연한 생각은 과거 보수적 유교문화의 잔재인 편협된 현대인의 통념을 유쾌하게 반박하며 현대적인 시점에서 성의 평등에 대한 통념을 재고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노총각인 밴드선배 김 록의 집 방문 시, 노부모들이 마치 신방을 꾸미듯 이부자리를 펴놓는 무리수를 두는 장면도 과거 경제능력이 없는 젊은 여성들이 선택권 없이 내몰리듯 결혼을 강요받고 이를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시대의 모습을 아이러니화 하며 여성을 성적인 소모대상이나 자녀생산자 등으로 치부하는 불평등한 사회적 환경을 함축,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오랜 세월 유교문화 속에 관행처럼 길들여진 여성 인권에 대한 편협한 사고를 고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Fig. 5 참고)



Fig. 5. Expressing the dregs that marriage was imposed without any choice and accepted as fate

이렇게 무례에 가까운 무차별적인 선배 김 록의 결혼 제안에 ‘갈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여행 중’, ‘집은 없어도 생각과 취향은 있어’라며 확고하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소신을 표명하며 대응한다.

이렇듯 성내거나 질투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며 자신의 선택한 삶을 누리며 타인에 대한 따뜻한 눈빛과 선의를 베푸는, 부드럽고 강한 힘이 보이는 주인공 미소의 모습을 통해 이상적인 주체적 여성성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더불어 선배 록이는 이혼하거나 부모에게 얽혀살지언정 가사노동이나 감정노동을 하지 않는 설정을 통해서도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에 대한 감독의 시선을 엿볼 수 있다. 표3은 본론의 내용과 의미를 요약한 내용이다. (Fig. 6 참고)



Fig. 6. Expressing Equal dignity of tastes and choices

Table 3. derive an indicator of the artistic essence

scene	description	sub-text
Smoking in front of cafe, always in front of men	General viewpoint Derive awkwardness	Resistance to prejudice in our own self-denial
When the keyboard goes to the warehouse	Describes the reality of a daughter-in-law who is being	Exposing the sad reality of surviving if you get used to giving up your

	exploited by domestic labor	desires and tastes at the same time as marriage
Do not give up the dream of the cartoonist, giving a sketchbook as a gift	It expresses the subjectivity that it is not to lose the his value by the physical and environmental adversity	Not only passive love, but also reveal a female figure as an ideal subject for pursuing his or her taste and life view
Scene of self-assertion that she was pregnant without knowing who his child is	make a statement of gender equality.	express gaze of the society that imposes strict notions of regulation only for women
An unreasonable scene with prepare their honeymoon room	In the age when women without economic power were forced to marry and accepted it as fate	Accusing a narrow-minded thought about the human rights of women who have been tame in the Confucian culture for many years

4. 결론

영화가 대중문화예술로서 사회구성원에게 주는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오랜 시간 관행처럼 익숙해진 유교 보수주의적 사고에 기인한 여성 인권에 대한 편협한 사고나 다양한 형태의 남성 편향적 고정관념, 불평등적 사회구조, 가혹한 여성의 성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금기 등은 근 시일 내에 척결 가능한 이슈가 아닌 과도기적인 이 시대의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영화 예술은 이와 같이 인간과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을 통한 사회의제 표현으로 구성원의 보다 성숙한 사고와 성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 이것이 바로 대중예술로서의 영화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진고운 감독은 물질적 환경적 역경 속에서도 비뚤어지거나 고매함을 잃지 않는 이상적인 주체적 여성성을 가진 주인공 이 솜 캐릭터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인간적 존엄성을 스스로 지키며 주체적 자아회복에 대한 꾸준한 자기 선택과 초월적 사고를 이 시대 사회구성원에게 권유하고 있다. 영화 속 주인공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곳곳이 본분을 이어나가는 삶과 인생에 충실한 모습은 한계적 유한한 인간의 경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숭고한 인간의 정신세계의 발현으로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가 주창한 예술론에 부합하는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페미니즘 이슈에 대한 태도와 접근은 성숙한 문명인으로서의 무의식적인 사랑과 희생으로서 보다 페

미니즘의 본질을 이상적으로 설명하면서 사회계몽적인 대중예술로서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중영화가 세상에 대한 넓은 식견을 키우는 교육 계몽적 성격을 견지하고 성숙한 사회문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사회에 대한 전지적 통찰과 이상적 인간관에 대한 제고 등을 다룬 영화는 사회를 긍정적이고 이상적으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섬세하고 사려 깊고 합리적이며 부드럽지만 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체적 여성의 묘사를 통해 이상적인 여성상에 대한 대중의 몰-모텔을 제시하는 효과 등 대중문화가 올바른 가치관을 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T. H. Lee. (2018). A Study on the Artistic Analysis of Modern Commercial Mov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6), 1-3.
- [2] K. C. Kim & K. W. Chang. (2019). Feminism. daum encyclopedia. film encyclopedia.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99XX32201475>.
- [3] A. R. Shin. (2018). 'Microhabitat', A little encourage to tell young people living a hard life, A small but definite happiness. topstarnews.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_xno=375698.
- [4] Mango cafe. (2017). *Introduction of feminism*. daum cafe. cafe.daum.net/MangGo1210/3Np5/144686.
- [5] H. K. Kim. (2006). *Let their imagination unfold*. chundaenews. <http://press.cnumedia.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6>.
- [6] S. Y. Kim. (2018). *15 little girls*, nate movies, movie.nate.com/movie_new/movie_info_news.asp?m_id=M000105527&ta.
- [7] Miss. Byurry. (2018). *What is my whiskey and cigarettes?* Wings.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unsk110&logNo=221442184267>.
- [8] S. H. Sung. (2018). knowing feminism by 'Microhabitat'. movie knowledge. Korea Art Critic's Association. <http://cafe.daum.net/lifecharm/Qnvn/260?q=%EC%86%8C%EA%B3%B5%EB%85%80%20%ED%8C%A8%EB%AF%B8%EB%8B%88%EC%A6%98>.
- [9] Study hard member. (2009). *Is the movie Delma and Lewis a feminist?*. film bank salad. <https://tip.daum.net/question/57695566/57697238?q=%ED%8E%98%EB%AF%B8%EB%8B%88%EC%A6%98+%EC%98%81%ED%99%94>.
- [10] JE. (2018). <The Handmaiden >flipping the camera. Brunch. <https://brunch.co.kr/@je21/8>.
- [11] H. R. Kim. (2018). 'Microhabitat'. Sae-byul Publishing Company. <http://cafe.daum.net/dawnbook/ObPS/9973>.
- [12] H. J. Na. (2018). *Her little trip away from home*. Brunch. <https://brunch.co.kr/@nhj619/247>.
- [13] H. J. Lee. (2018). 'Microhabitat' director Chun, go-eun- Choosing a woman who can not give up her taste. cine21. <https://brunch.co.kr/@sssp0112/476>.
- [14] Rice thief. (2018). *Where did all those older sisters go?* Brunch. <https://brunch.co.kr/@justdust99/11>.
- [15] S. I. Kim. (2019). *After watching again film "microhabitat"*. Copenhagen (naver blog).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imseein&logNo=221526471064>.

이 태 훈(Tae-Hoon Lee)

장학



- 2003년 9월 ~ 현재 : 경희대학교 디지털 콘텐츠학과 교수 임용
- 관심분야 : 영화
- E-Mail : thlee1401@empas.com